

[**北 로켓발사 강행**]

대미 협상력 극대화 - 체제 결속 강화 다목적 포석

로켓 왜 쏘냐

“강력한 도발만이 미국을 협상탁(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다.”
북한은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로켓 폭대기에 ‘인공위성’ 대신 ‘핵탄두’만 실으면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핵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엔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하루빨리 북미 양자 협상에 끌어내려는 의도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북미관계의 급진적 개선을 기대했던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위기 해

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충격을 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이번 로켓 발사는 정치적 의미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북한은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9일)를 앞두고 두번째 “인공위성”을 쏘올림으로써 강성대국 달성의 희망을 주민들에게 확산시켜 내부 결속과 체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핵시험에 이은 인공위성 발사로 강성대국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심어줌으로써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

美 대북정책 헤게모니 장악 후계자 내정 경축 의미도

결에 골몰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감안해 이란에는 능동적으로 접근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선 부시 행정부 말기의 대북정책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강한 실망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반인 민주당측 인사들 사이에선 남북문제는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맡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06년 핵시험을 실시한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무발 능력까지 입증해 미국을 직접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을 장기적인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이나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가 아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시급한 중대과제로 미국 여론에 부각시켜 협상에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 검토 단계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굳어지기

심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번 로켓 발사의 폭음은 북한으로선 김정일 3기체제는 물론 후계체제 구축의 ‘축포’라는 의미도 크다. 북수의 정보소식통은 “광명성 2호 발사는 북한 권력층 내부적으로 김정일 3기 체제의 축포가 보다 후계자 내정을 경축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은 정운의 어린 나이 때문에 대내적인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러한 대내외의 쉼벌 속에 국제사회의 제재 등 ‘강경’ 움직임에 ‘초강경’ 대응이라는 일관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안보리 논의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며 6자회담 거부와 핵



2천억원~5천500억원 추정

비용 얼마 들었나

북한이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2호’와 이 로켓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 ‘광명성-2호’를 개발한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로켓과 탑재된 위성의 개발비로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5천500억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주과학기술이 일정규모에 오른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위성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최소 2천억원 가량이 추정되지만 북한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이보다 2배 이상이

소요했을 것이라 관측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 7월 발사한 다목적 실용위성 2호(아리랑2호)는 1999년부터 7년에 걸쳐 2천600억원이 투입됐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뒤 관영매체를 통해 지상발사 장비와 지상조종장비 등에 최소 3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 언론사 대표단의 방북 당시 2억~3억 달러가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개발 노력 등을 따져보면 5천500억원 가량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은 로켓 쏘지만 우린 나무 심는다”

이대통령 냉정 대처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NSC 소집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를 하면서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밝혀, 이번 사태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인 데다 냉정함을 잃고 선분할 대처할 경우 북한의 계산된 의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이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치고 전날 귀국하자마자 안보관 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외교안보수석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결정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대포동 2호 개량 ... 사거리 최대 8천km 탄두무게 1톤

‘은하 2호’ 제원은

북한이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2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으로 개발된 대포동 2호로 추정된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2006년 7월 발사했다 실패한 대포동 2호를 일부 개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원 자체는 당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길이 약 32m의 3단 추진 방식으로, 사거리는 4천500km에서 최대 8천km까지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두무게는 1천kg에

이른다. 1-2단 추진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탑재체를 궤도에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3단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가장 아래에 있는 1단 로켓은 전장 17.8m, 직경 2.4m로, 중국의 CSS-3 미사일 추진체를 개량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2단 로켓은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 추진체로, 전장 10.8m, 직경 1.3m다.
북한이 1998년 첫 번째 위성발사 실험을 한 발사체인 대포동 1호는 길이 25.5m에 사거리 1천500~2천500km로, 1단계 로켓은 노동1호 미사일, 2단계 로켓은 스커드-C 미사

일을 사용했다. 직경은 노동1호가 1.35m, 스커드-C가 0.88m다
발사 당시 1단계 로켓은 95초를 연소한 뒤 253km 지점에, 2단계는 266초를 연소하고서 1천646km 지점에 낙하했다. 하지만 3단계 로켓은 궤도진입에 실패해 대기중에서 타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실패도 엔진계통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북한은 이후 이란과의 기술협력 등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이후 KN-02 미사일 개발로 소형로켓용 고체연료 기술까지 확보했다. /연합뉴스



“엄중 대북 제재를” “정부 신중 대응을”

여야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은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반대와 유감의 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뒤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당에 따라 그 온도차가 분명했으며 정부 대응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엄중한 대북 제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의를 통해 “유엔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고

으며,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명백한 국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보상을 얻으려 한다면 착각 중의 착각”이라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엄중한 대북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북한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남성강한 힘' (Men's Strong Power) featuring a product called '남성강한 힘' (Men's Strong Power) and '남성강한 힘' (Men's Strong Power). The ad includes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남성강한 힘' (Men's Strong Power).